

결실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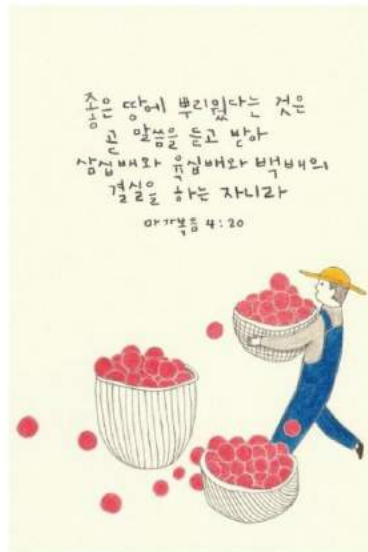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October 10,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22번 - 시편 37편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찬 송 / 27장 - 빛나고 높은 보좌와 / 1, 2절 (통일찬송 27장)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337장 -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통일찬송 363장) 찬 송 / 327장 - 주의 주실 화평 (통일찬송 361장) 봉 헌 / 박진성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290장 -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일찬송 412장) 성경말씀 / 요나 3:5-11 니느웨의 회개, 우리의 회개는?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예배소서 6:10-20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라.

-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금주는 **믿음성장**과 **성숙의 주간**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 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 10월 **합심기도** 점심 친교 후 팬데믹 이후 사역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후1:30)
- 사역훈련** 12 주간의 **안수집사** 교육이 계속 됩니다.
(1:45 p.m. 컨퍼런스 룸)
- 임시 제직회** 점심 친교 후에 있습니다. (안건: 행정)
- 성경 읽기** 매주 성경읽기 문제로 훈련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토요 새벽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시다.
(오전 10:15 / 인도: 장영현 전도사)
-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매 주일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시다.

10월의 사역 - Post Covid-19를 위한 기도모임(10월)

성장과 성숙 주간(10-16)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7-23)
선교 주간(24-30) 선교 주일(31)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10/10	10/17	10/24	10/31
	최선윤집사	장영현전도사	구은강집사	구민집사
주일헌금위원	10/10	10/17	10/24	10/31
	박진성집사/유동숙집사		최내권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10월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마지못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 요나 3:1-4**

니느웨는 3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큰 도시였다. 하지만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만 “사십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다. 한참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요나의 순종에도 니느웨는 철저히 회개했다. 이는 회개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요나의 마지못한 순종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된다.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났다면, 우리의 온전한 순종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자원해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본받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자.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 요나 3:5-11

니느웨는

- 금식하며 모든 죄악을 내려 놓았다.

- 그 어떤 구별이 없이 모두가 참여했다.

-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도전이 되었다.

- 하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말에 그치지 않는 삶의 변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 요나 3:5-11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 왕은 슬픔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 입고 금식을 선포해,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먹지 않았다. 악한 길로 행하던 강포를 버렸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했던 진정한 회개였다. 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경고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니느웨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게 멸망 당했다. 단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죄를 범하기에 회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18세기 말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미국도 지금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선포로 시작됐다. 복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밝히 보이며 마음이 찢린다. 그 찢림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가야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형제 자매가 거울이 된다. 믿음의 본이 되는 형제 자매를 통해 도전을 받고, 부족한 형제 자매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는다.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연약한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이런 회개는 계속 되어야 한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 우리는 성장한다.

니느웨의 회개운동은 일회적인 사건에 멈춰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회개운동 다음 세대에서 니느웨는 멸망했다. 우리는 이를 교훈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때로는 금식하며 자신을 완전히 내려 놓자. 말에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죄 때문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을 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 번은 타 교회 성도 가정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청했다. 그 가정은 자녀를 어느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놓고 실망감으로 고민이 깊었다. 특히 아버지는 신앙은 없으나 자녀 때문에 그 대안학교가 속해 있는 교회를 할 수 없이 따라 다녀주는 정도의 초신자였다.

그런 그가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나이 50이 넘는 경상도 사나이가 사람들 많은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그가 목양실로 들어와 “저는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보고 말씀에 은혜받고 감동받은 적이 처음입니다”라며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정신이 번쩍 났다.

“저 같은 장사꾼은 장사하고, 교육자는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목사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학교가 장사를 하고 교회가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사꾼인 저에게는 장사하는 장사치의 술수가 뻔히 보이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듣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고 정신이 번쩍 나는 경험이었다. 나는 ‘나는 과연 지금까지 정말 본질을 붙잡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목사답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라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었다.

그렇다. 학교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 당연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존재의 이유를 잃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권위와 힘을 잃는다...

내가 항상 늘 두려워하며 가슴에 새기는 말씀들이 있다. 사역이 분주하고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로 정신없을 때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이 말씀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마 7:21-23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 모습이 될까 두렵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과도 많이 냈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분주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활동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고 있는가, 집중하는가, 그분을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가, 오늘도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음을 인정하며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사역이 분주하고 선택과 결정의 갈림길에서 생각이 복잡해질 때마다 나는 “장사꾼은 장사하는 게 맞고 교육자는 교육해야 하고 목사는 목회해야 한다.”는 그 분의 말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 복잡했던 고민과 갈등들을 교회의 역할로 집중시켜 단순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안호성, 『포커스 온: 집중하라』



아이가 드리누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아아아~ 사죄 사죄 사죄!!!”

아이는 갑자기
기도하는 듯 옆드리더니

“엄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장난감 사주래!”라고 했어요.
엄마는 웃음이 나왔지만
다시 말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맞으실까?”

그런데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중하고, 그분의 공의나 회개하심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시는 하나님.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건, 우상이기에 나를 망가뜨리지요.

진정한 사랑은 “네가 뭘하든 다 괜찮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 괜찮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것은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번도. 그 모습 그대로 괜찮아.
네가 뭘 하든 다 사랑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기에, 탕자의 삶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 괜찮다가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회복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성경을 통해, 주님을 진짜 만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골로새서 2:6-7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듯 배어오니 그 안에서 행우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은 배어 고통은 배어 근근 믿음에 굳게 서서 기생함을 넘치게 하라.”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